

완도해양치유센터 개관 2주년...‘치유1번지 도약’

누적 12만명·경제파급 효과 180억원
빅데이터 플랫폼...‘완도형 모델’ 구축
다시마 등 특산물 활용 테라피 제품도

국내 최초 해양치유 전문 시설인 완도해양치유센터가 개관 2주년을 맞아 180억원의 경제 파급효과를 창출하며 지역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로 자리잡았다.

2일 완도군에 따르면 완도해양치유센터는 지난 2023년 11월 개관 이후 운영 안정화와 프로그램 고도화를 거쳐 누적 이용객 12만명을 달성했다.

이는 그동안 국내에서는 생소했던 해양 신산업 분야의 선도 지자체로서 군이 단행한 과감한 투자와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 구축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용객의 저변도 크게 확대됐다. 초기 개인과 가족 단위 방문객 중심에서 최근에는 건강 관리

를 위한 고령층과 장기 치유객, 기업 연수, 스포츠팀 재활 훈련 등 다양한 계층이 센터를 찾고 있다.

방문객 증가는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졌다. 군 자체 분석 결과 지난해 해양치유산업의 지역 경제 파급효과는 약 181억원에 달했다. 이는 센터 이용객의 숙박, 음식, 특산물 소비 등에 따른 직접 효과와 관광 등 연관 산업의 간접 효과를 종합해 산출한 수치다.

군은 최근 타 지자체의 추격으로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해양치유 콘텐츠 시대’로의 전환을 위해 ‘완도형 해양치유 모델’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공공 치유 서비스를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해양치유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프로그램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건강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치유 서비스를 도입해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인파티너 풀 및 스포츠 재활 공간 등 시설 고도화 ▲해양·산림·레저 융합형 콘텐츠 개발 ▲만성 질환자와 고령층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해양치유 스테이’ 운영 ▲다시마·유자 등 지역 특산물 활용 테라피 제품 상용화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해양치유 콘텐츠 개발과 과학적 검증, 운영 전략의 차별화를 통해 산업 선도 도시의 지위를 더욱 확고히 하겠다”며 “해양치유산업의 성과가 군민에 파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



◀완도해양치유센터 1층 탈라소폴에서 방문객들이 따뜻한 해수를 이용한 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완도군 제공>

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완도해양치유센터는 전국 최초의 해양치유 시설로 해수와 해조류, 머드 등 완도의 청정 해양자원을 활용한 탈라소 폴, 명상 풀, 해조류 거품 테라피 등 16개의 테라피실을 갖추고 있다.

군은 각 섬이 보유한 테마 자원을 치유와 연계해 완도 전역을 ‘치유의 섬’으로 조성 중이며, 향후 국립완도난대수목원이 개원하면 해양과 산림이 어우러진 명실상부한 ‘치유 거점 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완도=윤보현 기자

강진 장미농가에 ‘스마트 LED’...생육 증대·에너지 절감 기대

미래전략 특화사업...8곳 시범 설치
일사센서로 자동 조절 에너지 효율 ↑
생육 촉진·품질 향상 소득증대 기대

강진군이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일조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미 재배 농가에 ‘스마트 LED 보광등’을 시범 보급해 눈길을 끌고 있다.

2일 강진군에 따르면 군은 전남도농업기술원 주관 ‘2025년 맞춤형 미래전략 지역특화 작목 육성 사업’ 공모로 확보한 예산으로 장미 재배농가 8곳에 식물전용 LED 보광등 설치를 완료했다.

이번 사업은 기후 변화에 대응해 안정적인 영



강진군이 최근 ‘장미농가 스마트 LED 보광등 시범 보급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사진은 시범사업에 참여한 칠량면 장미 재배 농가주 이경철씨가 생육 중인 장미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강진군 제공>

농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실제로 지난 겨울 장미 농가들은 잦은 흐린 날씨와 저일

조 현상으로 생산량이 평년 대비 70% 수준으로 급감하고, 곰팡이병이 확산되는 등 큰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도입된 LED 보광등은 장마철이나 겨울철 등 일조량이 부족할 때 장미의 생장점에 직접 빛을 공급, 광합성을 돕고 생육을 촉진하는 장치다. 특히 이번에 보급된 시스템은 ‘스마트 일사센서 기반 자동 제어’ 방식을 적용해 차별화를 뒀다.

센서가 실시간으로 일조량을 감지해 광량이 부족한 시간대에만 자동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작물 생육 증대와 에너지 절감이라는 ‘일석이 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장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이경철(45)씨는 “이전에는 자연광에만 의존

해 기상 여건에 따른 생산량 편차가 크고 병해충 발생도 잦았다”며 “보광등 설치 후 수확 시기가 앞당겨지고 꽃의 품질도 균일해져 소득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진군 관계자는 “최신 기술인 LED 보광등을 현장에 접목해 이상기후 속에서도 농가가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실용 기술을 적극 발굴해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진군은 장미를 지역 대표 전략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장미 직거래 포장 자동화, 접삼묘 육묘장 기반 확충 등 다양한 연계 사업을 추진하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강진=정영록 기자

영광군 상·하수도 요금 ‘인상’
1월 고지서부터 가정용 100원 ↑

영광군이 상·하수도 공기업의 만성적인 적자 해소와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2일 영광군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시작된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계획에 따라 2024년 첫 인상에 이어 2회차 요금 인상을 단행한다.

이번 인상분은 2025년 12월 검침분부터 적용돼, 군민들이 받아보는 2026년 1월 고지서부터 실질적으로 반영된다.

인상폭은 가정용을 기준으로 상수도 요금은 ㎡당 기존 730원에서 830원으로 100원 오르며, 하수도 요금은 기존 240원에서 290원으로 50원 인상된다.

이번 조치는 지속적인 생산 원가 상승에 따른 누적 적자를 해소하고 노후 시설 개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다.

앞서 군은 ‘2024년 영광군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기적인 요금 현실화 로드맵을 확정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상수도 요금은 2030년까지, 하수도 요금은 2031년까지 매 격년(2년) 주기로 각각 14%, 19%씩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요금 인상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취수원 추가 확보와 공공하수도 확충 등 시급한 시설 투자에 집중 투입해 수돗물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고 공공위생을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영광=김동규 기자



한국섬진흥원, 인천서 ‘섬의 가치’ 재조명

‘섬틈섬틈’ 공개강좌 100여명 참여
크리에이터 4인 섬 정착기 등 공유

한국섬진흥원이 섬의 숨겨진 가치를 알리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2일 한국섬진흥원에 따르면 최근 인천 상상 플랫폼에서 섬의 다채로운 이야기를 공유하는 특별 교육 프로그램 ‘섬에 한 걸음 더 가까이! 섬틈섬틈 BE아일랜드’를 개최했다. <사진> ‘섬틈섬틈 BE아일랜드’는 한국섬진흥원이 운영하는 섬 전문 교육인 ‘한섬원아카데미’의 일반인 대상 과정이다.

이번 강좌는 ‘2025 인천 섬의 날 페스타’와 연계해 한국섬진흥원과 인천섬발전지원센터가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시민 10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인천 섬의 소소한 이야기부터 섬에 정

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청년로컬 크리에이터들의 생생한 경험담까지, 섬의 현재와 미래를 입체적으로 조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총 2부로 구성된 프로그램 중 1부에서는 여행 크리에이터이자 방송인 안수지씨가 ‘일상에서 떠나는 인천 섬 여행의 발견’을 주제로 특강과 특별 공연을 펼쳤다.

이어지는 2부 ‘청년로컬 크리에이터가 만드는 섬의 내일’ 오픈 토크에서는 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청년사업가들이 연단에 올랐다.

전경희 도시경연연구소장의 진행으로 ▲김경민(강화도 핑크감지) ▲양태석(강화도 금풍양조) ▲김연용(선재도 빨다방) ▲이건철(장봉도 (0157)페) 대표 등 4명의 패널은 창업 과정과 비전, 섬의 미래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며 청중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목포=정혜선 기자



함평군 해보면 제1기 주민자치회 ‘첫발’

초대 회장 정경임씨...위원 27명 위촉

함평군 해보면이 주민 중심의 실질적 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회’ 체제를 새롭게 시작했다.

2일 함평군에 따르면 해보면은 최근 제1기 주민자치회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사진> 이로써 함평군은 지난 2022년 함평읍·신광면, 2024년 대동면, 지난 7월 월야면에 이어 전체 9개 읍·면 중 5곳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며 자치 기반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

해보면 주민자치회는 기존 단순 자문 기구였던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 대표 기구로 전환한 것으로 이번에 위촉된 27명의 위원은 앞으로 ▲지역 의제 발굴 ▲주민총회 운영 ▲마을 계획 수립 ▲생활 현안 개선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중

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앞서 지난달 26일 해보면사무소에서 열린 발대식 및 첫 임시회의에서는 정경임 위원을 초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자치회는 향후 임원진 구성을 마무리하고 2026년 활동 계획을 수립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 체비를 마칠 방침이다.

정경임 주민자치회장은 “지역을 위해 다시 한번 봉사할 기회를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주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해보면의 발전을 이끄는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주민자치회 전환은 주민이 주인이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첫걸음”이라며 “주민자치회가 민민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함평=기영규 기자

무안군, 제조 창업 활성화 ‘2025 MNU 메이커 페스티벌’ 성료

목포에서 창업 성과 공유 46개 팀 시상
전시·체험 등 다채...일자리 창출 기대

무안군은 “최근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메이커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된 ‘2025 MNU 메이커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국립목포대학교 창업혁신센터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역 내 메이커 문화를 공유하고 우수한 창업 성공 사례를 확산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자체 관계자를 비롯해 대학생, 예비 창업자, 지역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지역 창업 지원 기관 공동 비전 선포식 ▲우수 창업 기업 제품 홍보 ▲메이커 작품 전시회 ▲시상식 등이 진행됐으며, 플리마켓과 메이커 체험 부스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열려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시상식에서는 혁신 창업 성장, 제조 창

업 시제품, 대학생 메이커, 올해의 메이커 등 각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낸 총 46개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산 무안군수는 “MNU메이커스페이스는 단순한 제작 공간을 넘어 창의적인 아이디어 구현과 제조 창업을 이끄는 지역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확인된 창업 열기가 지역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안=김상호 기자



영암군, 야간 도로 조명타워 설치
교통사고 예방·보행자 안전 제고

영암군이 야간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도로 조명 시설을 대폭 확충했다.

2일 영암군에 따르면 최근 군서면 왕인박사 유적지 입구와 전남도농업박물관 교차로에 조명타워와 투광등 설치를 완료했다. <사진> 이는 지난해 삼호읍 용당교차로에 1호기를 설치한 데 이은 후속 조치로, 야간 조도를 높여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하고 보행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에 설치된 조명타워는 높이 24m 규모로, 기존 가로등(10~30x)보다 최대 2배 밝은 212lx의 조도를 자랑한다.

특히 비대칭형 투광등과 각도 조절 기능을 적용해 운전자의 눈부심을 방지하고 인근 주거지의 빛 공해를 최소화했다.

군은 횡단보도 안전 확보에도 힘을 쏟고 있으며, 지난해 18곳에 이어 올해는 보행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21곳에 LED 투광등을 추가로 설치 중이다. /영암=나동호 기자